

한국합섬, 회생절차 폐지 “파산”

대구지법, 지급불능 이유 파산결정 ... 2006년 정리해고 반발로 시작

국내 Polyester 장섬유 생산능력 1위인 한국합섬과 자회사인 HK가 파산하게 됐다.

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5월28일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되고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두 회사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총자산규모와 총부채를 감안할 때 지급불능 내지는 채무초과의 상황인 점이 인정돼 채무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두 회사에 대해 직권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2월 법정관리중이던 한국합섬과 HK의 회생계획안이 채권단과 담보권자들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해 두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증권선물거래소는 4월25일 한국합섬이 자본 전액잠식 상태이고 감사의견이 <부정적>인 점을 이유로 상장을 폐지했다.

법원은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해 6월27일까지 채권신고를 받는 등 회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한국합섬과 HK는 경영상 이유로 351명을 정리해고하려는 회사의 계획에 노조가 반발하면서 2006년 3월15일부터 가동이 중단돼 경영위기를 겪었고 6월27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5/28>